

신설사업 없이 검토사업에 광주~대구 내륙철도 달랑 1건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3일 오전 노랑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남 창당대회를 가진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의원의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연합뉴스

막오른 '공천전쟁'... 공관위 구성 진통

<공천관리위원회>

새누리, 위원 인선 막판 힘겨루기

더민주, 인물난에 선정 늦어져

국민의당, 이상돈 등 위원장 거론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공심 위 구성을 둘러싼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에 이한구 의원(4선, 대구 수성갑)이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10여명 안팎의 공관위 위원 인선을 놓고 최고위원 간의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친박계인 이한구 의원의 위원장 임명을 극구 반대했던 김부성 대표의 의중이 공관위 구성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2명의 공관위원을 추천하고 최고위원들이 1명의 공관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3일 공관위 구성을 끝내고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받을 계획이다. 공관위원들은 늦어도 구정 연휴 전에 상견례를 갖고 향후 경선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관위원장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4·13 총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당헌당규상 공관위는 선거 100일 전

인 지난달 4일 출범했어야 하지만 당 내홍과 분당 사태 등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사퇴에 이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등이 겹치면서 인선이 한 달이나 늦춰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공관위는 변경된 공천 방식에 따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를 먼저 걸러낸 뒤 지역구 별로 국민공천단을 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투표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구 공천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선거 막판 야권후보단일화 가능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더민주에서는 이번 주 내에 공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관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평가 하위 20% 대상자 발표는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데드라인인 2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일 창당한 국민의당도 본격적으로 공관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공관위 구성은 원칙적으로 외부인사가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관위원들은 설 명절 연휴 직후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상돈 교수가 공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의외의 외부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관위원 인선은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의 통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빠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2016~2025)에서 호남권 철도사업이 줄줄이 누락됐다.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분야에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호남 소외론'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 여건과 수요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반복되는 이 같은 '소외'로 지역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토불균형 발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충청·영남을 위한 철도계획=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수도권과 충청·영남권의 철도사업만 나열하고 있다. 먼저 수서~경기 광주선 신설사업을 시작으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 구간·평택~오송 구간과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구간 선로를 추가로 건설한다. 수색~금천구 30km에 1조9170억원, 평택~오송 47.5km에 2조9419억원, 용산~청량리~망우 17.3km에 1조3280억원이 필요하다. 호남권 사업은 영남과 연결하는 경전선 전주간 전철화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제2차 계획에 포함,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신규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항만에 연결하는 철도망을 늘리면서도 광주·전남을 제외한 대야~새만금항, 사곡~구미산단, 합덕~아산산단~석문산단, 지천~대구산단, 동해~동해신항, 월곡~인천신항, 부산신항선~부산마산선 등 7개

산단·항만 연결 7건 호남권 제외

전남도 강력 반발...4건 반영 촉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년)



사업이 선정됐다.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후보사업'은 모두 20개로, 지역 간 철도사업 15개 중 2차 계획 당시에도 추가 검토 대상사업이었던 광

주~대구 내륙철도(2차 계획 당시 연장 191.6km, 사업비 4조8987억원)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5개 광역철도사업에서 호남권은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해저터널, 서해안철도 등 4개 사업 강력 요청=전남도는 이번 제3차 계획에서 누락된 서울~제주해저터널(16조80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철도(3조5000억원) 등 4개 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의 경우 서울과 제주에 편중된 관광객을 남부지역에 분산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상악화 등에 따른 제주공항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또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무안공항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계획에 명시할 것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영남·충청권에 비해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전라선에도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익산~여수 간 고속철도 건설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천과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5개 노선(404.8km) 가운데 유일하게 미반영돼 있는 군산~목포 구간(141.4km)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철도 계획에서 호남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기반시설이 촘촘히 엮여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촉발된다"는 점에서 정부에 균형잡힌 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따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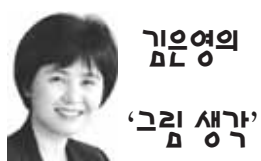


연탄 한 장 500원, 하루 세 장 1,500원, 한달 난방비 4만 5,000원...

모두가 따뜻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따뜻한 우리 모두의 세상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지하 1,000미터 막장에서
온기를 캐고 있습니다.

서민의 따뜻한 벗 대한석탄공사

친부모의 잇단 아동학대...갈기갈기 찢긴 모성



(143) 모성

살아가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수만 가지 정서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건 확장시절 교과서에 실렸던 한 편의 수필 때문인 것 같다. 안톤 슈나이 나열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를 마음을 덩달아 부서지게 했다. 그가 말한 슬픔의 첫 머리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다. 수필이 강렬해서인지 나의 본능적 모성 탓인지 정말 아이의 울음소리는 언제나 마음을 다급하게 하고 안타깝게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친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 만으로도 잔한 마음이 절로 일어나기 마련인 모성은 더 이상 본능적이고 생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일관되게 '효'를 강조했던 것은 그만큼 부모를 향한 치사랑, 효도가 어려운 것이기에 백행의 근본 가치관으로 수없이 교육시켰던 반면에 하지 말라고 해도 지나치지 마련인 것이 자녀에 대한 내리사랑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가슴 아팠다.

서양미술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은 '성모자상'이라는 표상을 통해 오랫동안 회화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적 의미를 초월하여 인간적이고 다양한 모자의



베르트 모리조 작 '요람'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이미지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종교적 사랑과 신성한 것에 대한 경외감, 성모자상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 세속적으로 변환시켜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 '요람'은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누스르 다친 모성을 위로해 준다.

그림은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참가한 유일한 여성 화가였던 프랑스의 베르트 모리조(1841~1899)가 그녀의 언니가 자신의 잠든 딸을 지켜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분홍색과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흰색 침대가 온화하게 느껴지고 어머니의 손과 아이 손의 움직임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모리조는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두고 그린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